유적지 순례 82

충정공 고(忠靖公 皐)와 판서공(判書公) 엄(儼)의 자손들 (1)

忠靖公 皐〈충정공 고〉

호는 성재(誠齋)와 수헌(水軒)이다. 충열왕 20년(서기1294년)에 출생하였다. 호가 증조부 충헌공과 같은 이유는 공민왕이 수평성재 4자를 써 하사한 때문이다.

동국명현록에 국재공의 19문인 중 1인이며 우탁(禹倬)의 문인이다.

고려사에는 문화군(文化君)으로 나오고 천성이 관후하고 근칙(謹勅)하며 예도와 규칙에 따라 행동하니 충숙왕이 어질다 하고 우상시(右常侍)에 배하였다. 공은 종1품 문하시중까지 올랐으나 중간의 관직 기록이 없으니 익재의 기록에 의존한다.

공은 충혜왕 복위 5년 지도첨의사사사(知都僉議使司事)였다고 이제현의 문화유씨 묘지에 기록되었다.

시와 글을 잘 썼는데 담암 백문보(白文寶) 초은 이인복(李仁復)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깊이 사귀어 창화(唱和)하였다. 마지막 관직은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영서연사(領書筵事) 상호군(上護軍)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며 수성필조협모공신(輸誠弼祚協謀功臣)에 녹훈되었다.

우왕 5년에 86세로 졸하니 충정(忠靖)의 시호를 받았다. 목은(牧隱)이 쓴 헌시(獻詩)에 "백미(白眉)의 호협한 기운 소시부터 적수가 없고 젊은 나이에 재상으로 계림(鷄林)의 윤인 되었다.

국노(國老)를 존경하되 대알(對謁)치 못했다. 언제나 장구를 모시고 따라가 화우(花雨)를 구경할까" 하였으며 소한당 람(擥)은 신촌 권사복(思復)의 시집에 공이 35세에 계림윤이 되었다 하니 이때가 충숙왕 15년(서기 1328년)이다. 양촌 권근에게 대작(代作)하여 이색에게 보낸 시에 "뒤에서 임금을 돕느라 힘을 다하고 재상을 마치고 나니 심신이 편하여 방에 도서를 진열하고 지팡이로 뜨락을 거닌다"하였다. 이색과 정도전이 만사(輓詞)를 지었다.

배 강양부인 합천이씨는 찬성사 설(偰)의 딸이고 묘소는 경기도 장단군 송남면 초현의 오신리에 있다.

공의 아들은 판서공 엄(儼), 군부정낭공 간(侃), 정간공 희(僖)이다.

判書公 儼〈판서공 엄〉

판서공 휘 엄(儼)은 김구용의 시에서 '계림의 나무 색깔 바라보니 푸른데 한점의 문창성(文昌星)이 익경으로 내려 앉는다' 하였고 원재 정공권(鄭公權)의 권판서 만사에서 '70을 사는 이 지금은 적고 모범으로 통달함 예적에도 많지 않았는데 선생에게 무슨 유한이 있으리오, 임금께 나가 좋은 벼슬 다하였네' 라는 기록만 있고 70 전후로 졸하였다는 기록 이외 상세 기록은 알 수 없다. 묘소는 원주에 있었는데 실전하였다.

아들은 판서 경(敬)과 검교한성윤을 지낸 상(詳)을 두었다. 판서 경(敬)의 아들은 낭장(郎將)을 지낸 서(緖)와 찰방 저(糸宁)이다. 서(緖)의 아들은 통덕랑 선(宣)과 현(賢) 일명 완(完)이다.

18世 선(宣)은 세종조 통덕랑(通德郎)을 지냈고 19세 연(延)은 세종 말에 등과하여 문종조에 참의에 올랐으나 단종의 외가인지라 세조의 박해로 몰락하였다. 연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장자는 화(和), 차자 통(通), 3자 진(眞), 4자 여주공 찬(粲)이다.

진(眞)은 후사가 없어 여주공 찬(粲)의 장자 백형(伯衡)을 양자로 삼았는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고 묘소는 여주 북내면 현암리 수룡산 선영에 있다. 백형(伯衡)의 아들 교(橋)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고 묘소는 현암리 수용산 선영에 있다.

軍簿正郎公 侃과 후손들

충정공(忠靖公)의 2자 간(侃)은 벼슬이 군부정랑이라는 기록밖에 없다.

정랑은 6조(六曹)의 정5품직이다. 장자 유(維)는 판삼군도총제부사(判三軍都摠制府事)이고 차남 인(絪)은 전적(田籍)이고 3남 내징(乃澄)은 출가하여 대선사(大禪師)가 되었다.

유(維)의 손은 췌(揣)이고 췌(揣)의 손 20世 형(衡)은 참봉이고 묘소는 상주시 공성면 도암에 있다. 형(衡)의 증손 23世 응거(應擧)는 호는 송산(松山)이고 성균진사이다.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埈) 등과 도의지교를 맺었고 용문서당(龍門書堂)과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창건한 사적이 돈사록(敦事錄)에 있다. 묘소는 상주시 공성면 서산 구유곡에 있다.

인(絪)의 고손 20세 의(義)는 중종 4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이 되고 중종 13년 공조정랑을 지냈다. 의(義)의 자는 희윤(希尹)으로 참봉이며 손은 기(琦)이다.

증손 23세 영준(英俊)은 명종 13년 여주 본제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약관에 박학다문(博學多聞)으로 널리 알려졌다. 임진왜란이 일어 왜구가 여주로 침공하니 부인 죽산안씨는 피하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공은 통곡하며 분연히 일어 독산성에서 왜적과 교전중인 권율장군 막하로 달려가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권율장군이 일을 처결하기 어려울 때면 공에게 의견을 물으니 공은 기계(奇計)를 내어 장군을 도우니 독산성 전투와 행주대첩에 기여함이 많았다. 난중에 도사(都事)와 사직(司直)을 거쳐 경력(經歷)이 되었으며 화왕산에 가서 곽재우를 도와 공을 세웠다.

선조 34년 논공행상에 들지는 못했으나 공노가 인정되어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공은 세상이 어지러우니 고향인 여주로 가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내다 광해 9년 60세로 병을 얻어 졸하니 공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경기도 과천의 상초리에 장사하였는데 2000년에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산 21-1번지로 후손들 가족묘지를 조성하여 면봉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자 효성(孝誠)은 효자로 이름 높아 뒤에 정려(旌閭)의 은전이 내렸으며 차자 효일(孝一)은 참봉이다. 효성의 아들 계상(啓相)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추증 되었으며 효일의 아들 계징(啓澄)은 통덕랑을 지냈다.

△증 공조참판 휘 영 준 묘비

△참판공 영준 묘소(여주 대신)

△군부정광공 문중 가족묘지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산 21-1

20세(世) 여주공(驪州公) 粲

찬(粲)은 조실부모하고 전전하며 학문을 닦아 중년에 등과하니 연산과 중종조를 거치면서 통정대부와 여주목사를 지내다. 말년에 수용산 아래 배동에 정착하니 내외 후손이 수천에 달하였다. 후손들이 1989년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배동에 묘우(廟宇)를 세우고 영승사(永承祠)라 하였다. 묘소는 수용산 좌록에 임좌 쌍분이다.

장자 백형(伯衡)은 중부 진(眞)에게 출계하고 차자 구(構)는 진사이고 묘소는 수용산 아래에 있다.

손자 언(彦)은 감찰이며 증손 봉룡(鳳龍)은 참봉이며 고손 태복(泰福)은 통덕랑(通德郎)이고 묘소는 모두 수용산 묘우 아래에 있다. 5대손 경성(景聖)은 명종 21년에 태어나 통정대부가 되고 62세에 졸하였다.

전사정(前司正) 권완(權完)

단종 2년 수양대군은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에서 송현수, 김사우, 전사정(前司正) 권완(權完)의 딸을 취하고 송현수의 딸은 정순왕후가 되고 김사우와 권완의 딸은 숙의(淑儀)가 되었다. 권완은 행돈령부판관(行敦寧府判官)이 되었는데 세조 3년 단종의 세를 제거할 때 송현수와 함께 단종을 복위시키려 하였다 하여 권완을 심문하여 능지처사(陵遲處死)하고 재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숙종조에 단종이 복위되어 정조 15년 영월의 창절사(彰節祠)에 사육신과 함께 32인의 정단에 배향되었다.

완(完)의 아들은 계수(繼守)이고 계수는 치(錙)와 전(佺)을 두었는데 치(錙)는 명종 6년에 졸하여 묘소는 황해도 서흥면에 있다.

〈현봉 권경석 편술〉

△여주공 위패를 모신 영승사(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배동)

△염승사 신축기념비

△20世 여주공 찬 묘소(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수용산)

△여주공 찬 묘비

△영승사 고원재

△영승사에 모신 여주공 위패

△진사공 구 묘소(여주군 현암리 수용산)

△현감공 언 묘소

△통덕랑 태복 묘소(수용산 선영)

△통정대부 경성묘(수용산 선영)